

# 사료(史料)로 살펴본 윤성덕(尹聖德)의 삶과 음악 활동\*

장정윤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사후 연구원)

1. 들어가며
2. 윤성덕의 삶과 음악 활동
  - 1) 첫 번째 시기(1926년 8월 이전): 이화에서 키운 꿈
  - 2) 두 번째 시기(1926년 9월~1937년 8월까지):  
미국 유학을 경험한 음악교육자
  - 3) 세 번째 시기(1937년 9월 이후): 미국 재방문과 그 이후
3. 나가며: 근대 여성 음악가 윤성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5B5A01051387).

## 개 요

본 논문은 근대 시기 음악유학을 경험한 여성 음악가 윤성덕(尹聖德, 1903~1968)에 대한 연구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삶을 당시의 신문기사, 잡지, 유학 기관에서의 기록, 미국 이민국 서류 등 새롭게 발굴한 1차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고 음악 활동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윤성덕의 삶과 음악 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평양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운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경험하고 이후 이화여전의 교수로 부임하여 음악 교육시스템의 발전에 헌신한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미국의 발전된 최신 음악 교육시스템을 경험하고 조선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화여전 교수의 신분으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이다.

윤성덕의 삶과 활동 전반에 나타난 음악에 대한 소명은 개인적인 성공과 명성을 위한 자아실현보다는 당시의 기독교와 여성 교육정책이라는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음악교육자의 모습으로 발현되었다. 또한 그녀는 김애식 이후 이화학당 출신 미국음악유학생으로 김메리, 김영의같이 보다 많은 여성 음악가들이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와 지원을 통해 미국 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하여 이화에 교육자로 투입되는 연장선의 시작점에 있다.

본 연구는 윤성덕이라는 인물의 삶과 음악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인물들을 밝힘으로써 한국 근대 초기에 활동한 여성 음악가의 갈등과 욕망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주제어: 윤성덕, 차성덕, 이화여자전문학교, 맥도웰장학금, 메리 영

## 1. 들어가며

윤성덕(尹聖德, 1903~1968)<sup>1)</sup>은 근대 시기 조선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유학을 경험한 여성 음악가이다. 당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한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에서 윤성덕은 미국 유학 후 교수로 부임하여 메리 영(Mary E. Young, 1880~?)과 함께 음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확장한 인물로 평가되며, 개인적으로는 재능 있는 형제자매를 둔 음악 가족의 일원<sup>2)</sup>으로 한국 근대음악사에서 종종 언급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성덕의 활동이나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은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조명되지 못했으며 생몰연도를 비롯하여 이화여전 교수의 위치에서 도미한 이후 행적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삶의 여정과 활동을 추적하여 인물을 구체화하고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윤성덕이 유학을 경험하고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적, 외적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놓였던 음악가 개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시의 신문기사, 잡지, 유학 기관에서의 기록, 미국 이민국 서류 등 새롭게 발굴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윤성덕에 대해 삶과 음악 활동을 구체화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과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며 한국 근대 초기에 활동한 여성 음악가의 갈등과 욕망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1) 윤성덕의 출생연도는 유학 관련 사료에서 1906년, 미국 재방문 관련 사료에서 1904년, 미국 시민권 획득 이후 사료에서 1903년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당시 늦은 출생신고의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윤성덕이 미국 시민권 획득하면서 바로잡은 것으로 판단하여 1903년생으로 표시했다.
  - 2) 윤성덕의 첫째 언니는 이화학당에서 음악을 공부한 윤심성(尹心聖, 1894~?)이고 둘째 언니는 <사의찬미>로 유명한 소프라노 윤심덕(尹心慰, 1897~1926)이며 오빠는 연희전문학교 출신 성악가 윤기성(尹基誠, c.1899~?)으로 윤성덕은 이들의 막내동생이다.

## 2. 윤성덕의 삶과 음악 활동

윤성덕의 생애는 활동지에 따라 조선과 미국에서의 삶으로 나뉜다. 1926년 미국 유학, 1929년 조선으로의 귀국, 1937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이라는 세 개의 활동지 변경 기점이 나타나는데, 윤성덕의 미국 유학은 약 3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조선으로 귀국 후 음악 활동이 음악교육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활동지와 무관하게 하나의 시기로 볼 수 있겠다. 이화여전 교수의 신분으로 1937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윤성덕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대외적인 음악 활동이 다소 축소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윤성덕의 삶은 총 세 시기로 구분했다([표 1] 참조).

[표 1] 윤성덕의 생애와 시기구분

시기	기간	활동지	주요 활동
첫 번째 시기	1926년 8월 이전	조선	이화7인전도대 이화학당 교사
두 번째 시기	1926년 9월~1929년 8월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 유학
	1929년 9월~1937년 8월	조선	이화여전 교수
세 번째 시기	1937년 9월 이후	미국 (뉴욕, LA)	한인교회중심

### 1) 첫 번째 시기(1926년 8월 이전): 이화에서 키운 꿈

윤성덕은 1903년 6월 13일 평양에서 윤석호(尹錫浩, 1854~1929)와 장신도(1862~1937)의 1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sup>3)</sup> 1915년 기사에서 윤석호

3) 윤성덕이 부모님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미국 이민국 인터뷰에서 나타난다. 윤성덕 어머니는 장씨 성을 가진 기독교 신자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장씨' 혹은 '김씨'로 언급되곤 하는데, 윤성덕의 언급에 따라 '장씨'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 file

는 풋나물 장사를 했고 장신도는 평양 광혜여원(筐惠女院) 사무원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이후 기사에서는 각각 ‘평양 목사’와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당에서 전도부인’으로 표현되고 있다.<sup>4)</sup> 본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윤성덕이 평양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보다 일찍 음악을 접한 언니, 오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윤성덕은 첫째 언니 윤심성과 마찬가지로 이화학당에서 공부했고 1917년에 대학예과와 1922년 대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이화학당의 수업은 40분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윤성덕은 대학예과에서 주 2회의 합창수업과 주 7회 피아노 수업을 받았다.<sup>5)</sup> 피아노 수업은 3년 동안 구체적인 점수가 기록되지 않고 평점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음악수업으로는 합창수업이 유일했으며 윤성덕이 정규 음악 수업과는 별개로 피아노를 배우고 익혔다는 것을 뜻한다. 대학과 성적표에는 피아노 수업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지만 ‘합창’ 대신 ‘음악’이라는 과목으로 주 3회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학예과의 합창수업과는 다르게 좀 더 확대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학당의 음악교육은 교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학당 초기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sup>6)</sup>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이후 여성의 음악 활동은 이전보다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윤성덕은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학교와 관련된 음악회나 감리교주최 음악회에서 노래와 연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윤기성군의 부친상,” 『신한민보』, 1929. 7. 18., “昔日은 樂壇의 明星 尹心德嬢,” 『동아일보』, 1925. 8. 1., “金尹兩人이 情死하기까지(二),” 『동아일보』, 1926. 8. 7.

4) “留學가는 여학생, 그 부친은 나물장사 그 모친은 병원 고용,” 『매일신보』, 1915. 4. 27., “東京音樂校에 입학된 조선 두 부인,” 『매일신보』, 1920. 5. 4., “昔日은 樂壇의 明星 尹心德嬢,” 『동아일보』, 1925. 8. 1.  
 5) 대학예과에서는 영어, 일본어, 미술, 체육, 합창에서 그리고 대학과에서는 일본어, 음악, 체육에서 90점 이상의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다.  
 6)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편),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134.

녀의 활동을 살펴보면, 1922년 이화학당 졸업식을 시작으로 유학 전까지 김합라(金合羅)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며 무대에 섰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이화학당 동기이자 7명으로 구성된 이화전도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윤성덕과 김합라는 각각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이화여전의 발전에도 함께 공헌한다. 이 밖에도 윤성덕은 전도나 강연 무대에 섰고, 행사가 있을 때면 대표로 축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둘째 언니 윤심덕의 노래에 반주도 맡았는데, 이 연주는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사진 1)과 [표 2] 참조).

[사진 1] 이화7인전도대<sup>8)</sup>



- 7) 김합라(金合羅): 오리건주립대학교에서 경제과 마치고 1928년 7월에 귀국하여 9월에 이화여전 교수로 부임했다. “금의환향한 김양, 금추부터 이화여전의 교수로,” 『중외일보』, 1928. 7. 22., “新學期를 마지한 市內各女學校의 消息(二),” 『조선일보』, 1928. 9. 23.
- 8) 이화7인전도대는 1920년에 결성되어 평양을 기점으로 북쪽 지방을 순행하면서 전도사업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사진의 뒷줄 왼쪽부터 홍애시덕, 윤성덕, 김합라이고 앞줄 왼쪽부터 김애은, 김활란, 김폴린이다. 김신도는 사진에서 누락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선 7인전도대,” <http://ewha.ac.kr/ewha/intro/history02-2.do>, 검색일: 2021. 1. 21.

[표 2] 윤성덕의 유학 전 활동

날짜	제목	장소	내용
1915년 10월 18일	노동대간친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이화인 4인의 합창 김인식 바이올린 독주와 독창
1919년 11월 18일	경성악대 주최 음악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이화학생 6인의 합창 임배세와 김매영의 피아노 연탄
1920년 5월 5일	강연회	종교예배당	“금주와 금연” 제목으로 강연 <sup>9)</sup>
1920년 6월 20일	이화전도대 구명회	청년회관	이화전도대 구명회
1920년 6월 21일	이화전도대	기독교청년회관	이화전도대 조직 김활란 강연, 임배세 독창
1920년 7월 5일	이화전도대 전도	야소교예배당	“중생의 생활” 제목으로 전도 <sup>10)</sup>
1921년 6월 7일	이화음악연주회	중앙기독교청년회관	김활란과 피아노 병주
1922년 3월 24일	이화대학졸업식	감리교회당	김합라와 윤성덕
1923년 5월 25일	중앙유치원 주최 음악연주회	경성공회당	김합라와 피아노 병주
1923년 6월 26일	동아부인상회 음악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윤성덕의 《카르멘》 아리아 독창에 윤성덕이 피아노 반주
1923년 8월 14일	목포음악대회	목포육영회	윤성덕 피아노 독주 윤성덕, 채동선, 출연
1923년 8월 29일	하와이학생 고국방문단 송별식	종로 청년회 대강당	김합라 윤성덕 병주, 한기주 독창
1923년 12월 17일	악성기념연주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김영환, 흥난파, 윤기성, 윤성덕, 윤성덕, 한기주, 김합라 등 출연
1924년 5월 6일	한양교회유년주일 학교 음악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김영환, 흥난파, 윤성덕 출연

9) “모임,” 『동아일보』, 1920. 4. 30.

10) “이화전도대전도,” 『동아일보』, 1920. 7. 12.

날짜	제목	장소	내용
1924년 10월 21일	기근구제여류자선 음악회	장곡천정공회당	경성악대, 배화합창대, 한기주 출연 김합라 윤성덕 피아노 합주 윤심덕 독창
1924년 11월 14일	자선음악연주대회	종로청년회관	윤성덕 피아노 합주 홍난파, 윤심덕, 한기주, 김영환, 안대선, 홍재유, 김원복 출연
1925년 5월 18일	이화여전음악회	이화여전	윤성덕과 학생 김귀인 피아노 합주, 김원복 무도곡 독주
1925년 11월 11일	강연, 음악대회	경성일보사루사 내청각	윤성덕 독창
1925년 11월 28일	경성여자음악대회	종로중앙기독교	윤성덕 피아노 독주 3인 피아노 병탄(김은실, 안례아, 한만복), 김애식과 메리 영의 피아노 병탄, 김활란 독창, 아펠젤라 독창, 경성연악대 연주
1925년 12월 11일	제2회 음악강연회	경성일보사루사 내청각	최남선, 홍난파, 김영환, 홍재유 김원복, 김인표 출연, 윤성덕 독창
1925년 12월 16일	리성희 환갑	이화학당	윤성덕 말씀
1926년 1월 16일	신춘남녀음악대회	청년회관	박영덕 독창, 김인표 만돌린 연주, 홍재유 바이올린 독주, 유재순 독창, 홍난파, 최동준, 윤성덕 독창
1926년 6월 20일	오늘의방송 (あすの放送)	라디오	윤심덕 독창, 윤성덕 반주

이화학당의 졸업생들은 상급생으로서 교사로 투입되었고 윤성덕 역시 졸업 후 이화학당 교사로 하급생들을 가르쳤다. 조선인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졌던 교사로서의 경험은 윤성덕이 음악에 대해 직접적으로 깨닫고 교육방식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유학 전 신문에 기고한 내용 통해 엿볼 수 있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천연적 산물이라 하겠다. -중략-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참 음악가를 발견하기는 아직도 멀었다 하겠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있으나 음악가는 없으니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다. 부모가 음악을 모르면 어린이의 취미와 기능을 알 리가 만무하다. -중략- 여러분! 조선에도 '모삿(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어려서부터 그 재간을 발휘시켜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나이 열다섯이 넘어야 비로소 피아노나 풍류를 대하고 알게 되니 그 뻗뻗한 손가락 무딘 눈으로 음악가를 희망하기에는 너무나 염치 적은 일일올시다. 적어도 부모된 이가 자녀의 취미와 기능을 다섯 살 전에 발견하여 그 방면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새해부터는 장차 조선의 '모삿'이 많이 나도록 어린이를 가르치는 여러 어머니는 크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sup>11)</sup>

윤성덕은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천연적 산물”이라고 하면서 음악교육을 독려하고 조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울 것을 권하며 이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윤성덕의 생각은 여성들의 교육과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가정 내에서의 아동교육에서 찾고 이것이 곧 여성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던 당시의 여성 교육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녀가 경험한 음악은 서양음악으로 기독교와 선교사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다소 한정적인 음악이었지만 당시 교육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성덕의 글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상황적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자아실현보다는 후세대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음악을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1) “음악가가 될 어린이들을 위하여,” 『조선일보』, 1926. 1. 1.

윤성덕은 이화학당 시절부터 소프라노, 피아니스트, 반주자로 무대에 섰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아니스트로 인식되었던 듯하다.<sup>12)</sup> 음악교육자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그녀에 대해 당시 이화여전은 “이화학당 창립 40여 주년 만에 최초 교비생으로 예정된 4년의 유학 후에는 조선악계에 새로운 서광이 비칠 것”<sup>13)</sup>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윤성덕도 모교의 후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했다.

나는 본래 음악을 좋아하고 더욱이 음악 가르치는 것을 즐겨합니다. 조선 사람은 다른 재주도 많겠지만 더욱이 음악에 대한 재주가 많은 것 같아서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는 한번 배워주면 곧잘 하는 고로 선생도 취미가 자연스레 생깁니다. 내가 이화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4년 동안 줄곧 이화에서 음악을 가르쳤지만 4년이 어느새 갔는 가하리만치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피아노를 정과로 연구하겠고, 그밖에 풍금, 성악, 공중음악 같은 것을 배울 터인데 **돌아와서도 역시 음악교육에 종사하고자하며 나 자신의 이름이나 날리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도 조선의 음악계는 유치하여서 음악회에 가보면 음악 듣는 사람들의 취미가 생기는 것과 훈련이 없는 것이 한심하도록 늘 기억에 남습니다. 적은 힘이나마 그런 방면으로도 조선음악계의 향상을 위하여 힘쓰려합니다.<sup>14)</sup>

유학 후 돌아와서 조선의 음악교육에 힘쓰고 싶다는 포부와 희망을 품고 윤성덕은 1926년 7월 27일 요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2) “윤성덕 양의 미국유학 이화학당 교비로,” 『조선일보』, 1926. 7. 15.

13) “윤성덕 양의 미국유학 이화학당 교비로,” 『조선일보』, 1926. 7. 15. 윤성덕의 실제 유학 기간은 3년이였다.

14) “미국 가는 세 언니,” 『동아일보』, 1926. 7. 16. 내용을 현대 문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강조는 필자가 한 것이다.

## 2) 두 번째 시기(1926년 9월~1937년 8월까지): 미국 유학을 경험한 음악교육자

윤성덕의 미국 유학에는 두 명의 인물이 연관되어 있는데, 둘째 언니 윤심덕과 이화학당의 내한선교사 메리 영이다. 윤심덕의 일본 유학과 이후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윤성덕은 유학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sup>15)</sup> 하지만 윤심덕과 달리 윤성덕은 대외적으로 무대에 서는 음악가로서의 성공보다는 음악교육을 위해 힘쓰고자 했고, 이러한 생각은 이화학당의 음악과 발전에 대한 요구와 맞물리게 되면서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이화학당의 음악과 교수였던 메리 영이 그녀의 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후 윤성덕은 자신에게 감화를 준 사람을 “음악교사 중 미쓰영씨”<sup>16)</sup> 즉, 메리 영이라고 밝혔다.

이화의 보호 아래 메리 영은 윤성덕의 유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화학당 창립 이래 최초교비생”은 실제로 메리 영이 한국감리교여성회(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연례보고서에 “윤성덕이 1926년 여름, 맥도웰장학금(McDowell Fellow)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sup>17)</sup>고 알린 것과 연관이 있다. 이 장학금은 미국 여성해외선교회(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in America)의 클로틸다 리온 맥도웰(Clothilda Lyon McDowell, 1858~1930)<sup>18)</sup>이 기금을 마련하여 미션

15) 윤심덕은 미망인이 된 언니 윤심성을 돌보면서 동생 윤기성과 윤성덕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昔日은 樂壇의 明星 尹心德孃(四),” 『동아일보』, 1925. 8. 5.

16) “내게 感化를 준 사람들,” 『東光』 33 (1932), 36.

17)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Around the Ewha Table,” *Twenty-Eigh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Chang Moon Christian Press, 1926), 49.

18) 클로틸다 리온 맥도웰은 남편의 이름을 따라 윌리엄 프레이저 맥도웰(William Fraser McDowell, 1858~1937) 여사로도 불렸다. 맥도웰 여사는 1921년 기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시작했고 최대 2년까지 매년 5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1926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윤성덕 외에도 Helen Kim(500달러), Grace Woo(750달러), Kwan Fang Li(1천달러), Hsiu

스쿨 학생이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 것으로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sup>19)</sup> 조선에 있었지만 유학을 계획 중이었던 윤성덕은 이화의 여성 선교사들과 메리 영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 2년 이내로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1년에 1천달러씩 지원받았다.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생각해볼 때 윤성덕의 미국 유학은 이화에서 음악과가 영문과와 같이 독립적인 음악학교가 되는데 있어 일종의 준비였다. 윤성덕과 함께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이화전도대에서 활동하며 피아노를 함께 연주했던 김합라는 윤성덕보다 한 해 빨리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김합라가 가정학 전공으로 유학 후 돌아와 이화여전의 가사과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윤성덕은 음악과에서 이와 비견되는 활약을 했다.<sup>20)</sup> 당시 이화여전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수진 확충이 필요했고 윤성덕은 음악에 대한 교육적 경험과 방식들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었다.

1926년 9월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미국에 도착한 윤성덕은 1926년 9월부터 1927년 6월까지 캔사스시티컨서바토리의 호너음악원(Horner Music Institute-Kansas City Conservatory)에서 공부했고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을 거쳐<sup>21)</sup>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로 옮긴다. 하지만 노스웨스턴대학교는 윤성덕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녀가 수학

---

Hsiang Tseng(750달러)가 있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맥도웰 장학금(MacDowell Fellowship)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19)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Year Book: Fifty-Seventh Annual Report of the Society* (New York: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6), 151.

20) 김성은, “김합라,”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14.

21) 호너음악원에서는 피아노와 성악, 화성과 대위, 음악사를 공부했는데, 성악과 피아노는 주 1회 30분씩 진행되었고 화성은 주 2회 1시간, 이론과 음악사는 주 1회 1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오벌린대학에서는 1927년 9월부터 1928년 2월까지 성악과 피아노를 공부했다.

했던 학교와 교육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이에 대해 미감리교의 애번 여사(Mrs. J. M. Avann)는 헐버트 웰취(Hulbert Welch, 1862~1969) 박사의 편지를 동봉하여 당시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입학할 담당하고 있었던 올리버 S. 벨츠(Oliver Seth Beltz, 1887~1978)에게 서신을 보낸다.<sup>22)</sup> 웰취 박사의 편지에는 윤성덕이 유학 전 공부했던 이화학당에 대한 수준과 발전 가능성 및 미감리교와의 연관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애번 여사는 윤성덕이 이화학당과 오벌린대학에서 수학한 학업 내용과 수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도록 서신에 설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윤성덕은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규등록 학생이 되었는데<sup>23)</sup> 그녀의 미국 유학에는 메리 영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의 증언과 서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음악대학은 학부에서 4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교육되고 있었다. 음악학사가 주어지는 실기(applied music), 이론과 작곡(theory and composition), 교회 합창음악(church and choral music), 그리고 음악교육학사가 주어지는 공립학교 음악(Public school music) 과정이었다. 윤성덕은 성악 전공의 실기과정의 학생으로 매주 30분의 개별 레슨을 받았고 성악 전공생에게 필수였던 피아노 수업에서 다른 전공생들의 노래와 연주에 반주를 했다. 이수한 음악 기초과목으로는 화성(harmony), 음악의 이해(music appreciation), 시창(sight singing)이 있었고 영어, 수학, 외국어가 이수해야 할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sup>24)</sup> 그 외에도 윤성덕은 일반교육학과

22) "A letter by J. M. Avann,"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2. 9. 애번 여사는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소속 선교사로 베이징대학교의 옌칭여성대학(Yenching college for Women of Peking University)의 의장이자 신탁이사회 위원이었으며, 헐버트 웰취 박사는 미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감독으로 내한했던 인물이다.

23) "A letter by Northwestern Registrar,"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2. 10.

24) Northwestern University, *The School of Music: Annual Announcement, 1928-1929*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29), 40., Northwestern University Gymnasium, *Seventy-First Annual Commencement* (Chicago: Northwestern

음악교육학을 공부하는데 그녀가 경험한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학사 진행방식은 이후 윤성덕이 이화여전에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떠나가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윤성덕이 유학 당시 시카고 지역의 한인 학생들과 음악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업 외의 활동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29년 6월 17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윤성덕은 시애틀을 통해 같은 해 9월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유학 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화여전에서 가르치기 시작<sup>25)</sup>했다. 윤성덕이 돌아옴으로써 이화여전 음악과는 교수진이 보강됨은 물론 이론과목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정립하기 시작했고 이론과 일반교양과목으로 나누어졌던 이화여전의 음악과는 1930년대 들어서면서 훨씬 정교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갔다. 개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살리면서 미국식 개인교수법을 강화했던 이화여전은 현실적으로 무대 위의 서는 음악가보다 음악교사가 필요했고, 이러한 요구 속에 이화여전의 기대와 총애를 한 몸에 받고<sup>26)</sup> 유학을 떠났던 윤성덕은 미국에서 체득한 생생한 경험들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선보이고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투입되었다.

---

University Press, 1929), 18., "A letter by Chairman Committee on Registration, Oliver S. Beltz,"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10. 3. 20시간이 요구되는 언어 관련 과목은 이화학당에서 습득한 한문(Chinese)과 일본어(Japanese)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었다. 이화학당에서는 한문을 익혔지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미국 유학에서는 이를 중국어를 공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25)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26) 유학 전뿐만 아니라 유학 후에도 이화여전은 윤성덕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五大學府 出의 人材 언.파렛드," 『三千里』 4/2 (1932), 2. 윤성덕은 윤심덕의 동생으로 표현되며 "활발한 그 성격, 드물게 보이는 미모, 천품을 타고난 미성으로 그 학교의 총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양의 나이 아직 30전임으로 전도양양한 이화꽃동산의 일꾼이라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윤성덕, 이화를 마치고 미국 갔다와서 모교 음악과 교수로 있다. 전공은 성악, 그런데 귀국한 지 벌써 3년 되나 보다. 그러나 이때나 저때나 하고 고대하고 있어도 아직 그의 아름다운 소리를 안들려준다. (그의 형님이 심덕씨였으니 물론 혈통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졌겠지) 6월에 결혼식을 한다니 아마 그때나 기념으로 독창회를 열려는지.<sup>27)</sup>

위의 인용문의 내용처럼 조선음악계는 미국에서 유학한 음악가로서 윤성덕이 연주자나 독창자로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성덕은 조선으로 돌아오고 난 후 곧바로 독주회나 독창회를 개최하지 않았고<sup>28)</sup> 음악가로서 개인적 명성을 쌓기보다는 이화여전에서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펼치기 시작했다. 단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윤성덕의 유학과 이후 행보를 보면 그녀는 연주자로서 활동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와 음악교육에 헌신하고자 했던 것으로, 자신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성덕은 메리 영과 함께 이화여전의 음악교육 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하며 학생들이 피아노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 旋律法』(1930)<sup>29)</sup>을 출판한다. 『피아노 旋律法』은 1924년 미국에서 출판된 오토 미스너(William Otto Miessner, 1880~1967)의 저술, 『더 멜로디 웨이 투 플레이 더 피아노』(The Melody Way to Play the Piano)를 번역한 것으로 총 46곡의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비교적 짧고 간결한 악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여전에서 새롭게 채택했던 그룹으로 음악을 지도하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미국에서도 최신키 교육 방법이었고 빠르게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었는데, 윤성덕은 『피아노 旋律

27) “半島 樂壇人 漫評,” 『東光』 22 (1931), 39. 윤성덕이 1929년 8월 귀국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는 3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2년이다.

28) 이후에도 윤성덕이 독창회나 독주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29) 『피아노 旋律法』은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음악교육자 오토 미스너(William Otto Miessner, 1880-1967)가 쓴 *The Melody Way to Plat the Piand*(1924)를 번역한 책으로 1930년 6월 16일에 이화여자전문학교음악부에서 발행되었다. 윤성덕이 번역했고, 메리 영이 발행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法』을 통해 선진적인 음악교육방식을 도입하여 클래스 피아노 교수법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sup>30)</sup>

윤성덕은 피아노 연주와 노래로 간간이 무대에 섰으며 이화여전글리클럽의 지휘<sup>31)</sup>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표 3] 참조). 그리고 조선에서 열린 음악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1934년 2월에 열린 ‘전조선 명가수 선발 음악대회’에서 현제명, 메리 영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위촉<sup>32)</sup>되었고 같은 해 6월 2일에 배재강당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여자중등교현상음악대회에서 부츠 부인(Florence Schumacher Boots, 1896~1977), 메리 영과 함께 성악 부분 심사위원<sup>33)</sup>을 맡았다.

[표 3] 1926년부터 1937년까지 윤성덕의 음악 활동 기록

날짜	제목	장소	참여자 및 내용
1927년 9월 8일	우라키	세인트 제임스 미감리교 예배당	한인 유학생 참여
1931년 1월 18일	예배당 증축봉헌식	중앙예배당	윤성덕 연주
1931년 1월 23일	이화여전 동창음악회	장곡천정공회당	윤성덕 연주
1931년 2월 11일	조선음악가협회 제1회 총회	종로백합원	홍난파, 채동선, 안기영, 최호영, 독고선, 홍재유, 김원복, 김영환, 김인식, 윤성덕 출연

30) 최승현, “1930년 이화음악과의 『피아노 선율법(旋律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 『이화음악논집』 10/1 (2006), 12-13. 자세한 내용은 최승현의 논문 참조.

31) “音樂界의 權威 自進하여 演奏,” 『동아일보』, 1934. 9. 21. 이화여전글리클럽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사진 속 앞줄 가운데 인물이 윤성덕이다.

32) “名歌手選拔 審査員四氏決定,” 『조선일보』, 1934. 2. 14. 콜럼비아레코드 경성지점 주최 본사 후원으로 열렸다.

33) “第一回 全朝鮮女子中等校 懸賞音樂大會,” 『동아일보』, 1934. 5. 29. 기악 부문에는 박경호와 정애식이 맡았다.

날짜	제목	장소	참여자 및 내용
1931년 6월 4일~6일	여자상식강좌	중앙예배당	윤성덕 연주
1933년 12월 10일	이화여전 글리클럽 축하음악회	정동예배당	윤성덕, 글리클럽 지휘 반주 김영의
1934년 5월 26일	라디오	-	9시 방송 정동찬양대, 윤성덕 소프라노 오블리가토, 반주 김영의, 지휘 메리 영
1934년 7월 2일	이화여전 순회음악회	철원읍 철원극장	윤성덕, 김영의(피아노 독주, 반주)
1934년 7월 3일~9일	이화여전 순회음악회	3일(원산), 5일(함흥), 6일(청진), 7일(회령), 9일(용정)	윤성덕 지휘
1934년 11월 3일	이화여전 추기대음악회	배재대강당	윤성덕 <인디안의 사랑노래> 독창 이화여전 글리클럽 지휘
1934년 11월 7일	이화여전 현상음악	정동예배당	심사위원: 메리 영, 아펜젤라, 대머론, 현제명, 윤성덕
1936년 11월 9일~17일	이화여전 음악단 지방 순회연주	9일(개성중앙회관 대강당), 10일(평양 백선행기념관), 11일 (차련관공보대강당), 12일(안동공회당), 13일(봉천동), 14일(철영동), 16일(하얼빈공회당), 17일(신경동공회당)	윤성덕, 김영의

### 3) 세 번째 시기(1937년 9월 이후): 미국 재방문과 그 이후

이화여전 교수의 위치에서 윤성덕은 음악연구를 위해 1년을 예정하고 1937년 8월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sup>34)</sup>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라기보다는 쉼

34) “音樂教育研究次 尹聖德氏渡米,” 『동아일보』, 1937. 8. 24.

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시카고, 뉴욕 등 미국 지역의 음악학교 시찰을 목적으로 떠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여러 학교를 둘러보며 음악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이화여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음악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이유였다. 요코하마를 거쳐 1937년 10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한 윤성덕은 도착하자마자 3개월 동안 프린스턴 합창학교(Princeton Choir School)에서 성악, 피아노, 지휘를 공부<sup>35)</sup>했다. 이는 한국에서 이화글리클럽을 이끌어가면서 음악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배움으로써 조선에서 음악교육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해 12월부터 윤성덕은 뉴욕으로 가서 여러 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1년 후 돌아와야 했지만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인 1938년 7월 비자 연장 신청<sup>36)</sup>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기재된 비자 연장의 목적은 미국의 음악학교를 더 둘러보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체류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서류의 많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서식을 제출하여 비자 연장은 거절당했다.<sup>37)</sup> 이후 비자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윤성덕은 계속해

35)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윤성덕이 이민국 인터뷰에서 언급한 프린스턴 합창학교는 프린스턴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컬리지(Westminster Choir College)로 보이는데 윤성덕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36) "Application to extend time of temporary stay,"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8. 7. 8.

37)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8. 7. 16.,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3. 27., "A letter by Edith M. Royce," 1939. 3. 2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편), 『이화100년사』, 130, 135. 1938년 10월 1일 만료되는 비자 때문에 미국 이민국은 윤성덕의 출국 일정을 묻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는 윤성덕 본인과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이었던 피블스 여사(Mrs. Hauser O. Peebles), 에디스 M. 로이스(Miss Edith M. Royce)에게 보내졌다. 피블스 여사는 안익태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로이스는 1920년 내한하여 평양에서 전도 활동하다 1930년 귀국한 감리교 선교사로 노의시(魯義叟)이다. 로이스는 1924년부터 이화학당에 체육교사로 재직했는데, 편지에서 로이스는 자신이 이화학당에 있을 때 윤성

서 음악학교를 시찰하면서 한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의 서류는 윤성덕에게 전달되지 않고 계속 어긋났다. 결국 1939년 6월 26일이 되어서야 윤성덕은 이민국의 편지에 답신<sup>38)</sup>을 보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Mr. Wagner  
Department of Labor  
Immigration Service

June 26, 1939

My dear Sir:

요즘의 동아시아 정세로 인해서 적어도 1년 이상 비자가 연장되도록 신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으로서 일본 군대에 잡혀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화여전(한국여성을 위한 미국선교대학)에 있는 제 동료들은 일본에게 굴하지 않는다하여 감옥에 가고, 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교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제국에게 충성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인 교사가 한국인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교육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일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복종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질 동안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에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 상황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비자 연장을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음악학교와 고등학교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부지역은 작년에 둘러보았고 앞으로 서부와 중동부 지역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제 주소는 지난 8월과 같습니다. 이곳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제 여권상 이름은 세이 토크 인입니다(일본 여권).

Miss Sungduk Youn (Sei Toku In)

---

덕을 가르쳤으며 이후 동료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성덕은 1922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이스가 실제로 윤성덕을 가르쳤을지는 알 수 없다.

38) "A letter by Sei Toku In,"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6. 26. 내용은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편지를 보면, 윤성덕은 조선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세가 안정 될 때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음악학교들을 둘러보고 있었으며 이를 앞으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39)</sup> 미국 재방문에서 윤성덕은 음악교육에 뜻을 가지고 음악학교 시찰한 이후 조선으로 돌아가서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성덕이 훗날 밝힌 바에 의하면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1938년 3월 1일에 뉴욕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행사 프로그램지에 독창자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뉴욕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으로 여겨져 일본 순사들이 조선에 있는 윤성덕의 집에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이다.<sup>40)</sup>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38년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으로 일제의 전시파시즘이 강행되던 시기에 조선의 독립운동과 조선인 교사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윤성덕은 예정된 일정대로 귀국할 수 없었다.

여건상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비자 연장도 어려워질 무렵 윤성덕은 결혼하게 된다. 한국에서 혼담이 오간 적은 있지만<sup>41)</sup> 미혼인 상태로 활동을 이어가던 윤성덕에게 결혼은 비자가 계속 거부되고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해결책이었을지도 모른다. 음악교육에 뜻을 품고 유학 후 이화여전에 곧바로 투입되어 음악 교육시스템 정

39) 이민국은 1939년 12월 4일에 다시 윤성덕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다. 지인으로 김경(金慶, 1888~1966)이 있었는데 김경은 시카고 세계 박람회의 투자실패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1938년 8월경 임배세(林培世, 1897~1999)와 함께 시카고를 떠나 뉴욕으로 갔기 때문에 시카고로 연락을 취한 이민국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12. 4., "Certificate of Admission of Alien," 1941. 10. 18., 장정운,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음·악·학』 35 (2018), 39.

40)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41) "현재 이전음악과에 계시는 서른이 넘는 독신여교수이며"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獨身女敎員名簿," 『三千里』 8/6 (1936), 131.

착과 확장에 힘썼던 윤성덕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 역시 미국의 발전된 최신식 음악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함이었는데,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귀국 시점 또한 예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해진 비자 문제는 불투명한 미래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현실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다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38년 12월 26일 윤성덕은 차진주(車鎭周, James C. Charr, 1905~2000)<sup>42)</sup>와 뉴욕에서 결혼했다.<sup>43)</sup> 결혼 이후 윤성덕은 뉴욕을 비롯한 한인 사회에서 ‘메리 차(Mary Charr)’ 혹은 ‘성덕 메리 차(Sungduk Mary Charr)’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sup>44)</sup> 한인 예배당에서 열리는 행사 진행을 지휘하고<sup>45)</sup> 음악회를 할 때면 진행을 하고 연주도 했다([표 4] 참조). 하지만 미국 정착과 함께 윤성덕의 음악 활동은 교육기관을 벗어나게 되면서 크게 축소된다. 서양음악을 전공한 조선인이 미국에서 전문적인 연주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그려볼

42) 제임스 차(James Chen Charr, 1905~2000): 본명은 차진주(車鎭周)로 고성에서 태어나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고 1922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진링대학교(金陵大学, University of Nanking)의 부속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26년 5월 28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우스다코다의 휴런대학(Huron College)에서 1926년부터 1930년까지 공부했으나 졸업하지는 못했다. 1930년 9월부터 1932년 6월까지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체육학을 공부하였고 1945년 9월 7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윤성덕은 제임스 차와 결혼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가 이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43) 윤성덕과 차진주는 메리 영과 로이스 여사를 증인으로 하여 뉴욕 맨해튼의 Park Ave. 60 번가에 위치한 감리교회(Christ Church)에서 결혼했고 1943년 1월 딸을 얻는다. 딸의 이름은 ‘메리 엘리자베스 순덕 차(Mary Elizabeth Sun-Duk Charr)’로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준 메리 영의 본명 ‘Mary Elizabeth’와 이름이 같다. “차진주씨 동부인 득녀,” 『신한민보』, 1943. 3. 4.

44) 윤성덕은 뉴욕에서 임배세, 김상순, 최폴, 조홍식 등과 함께 뉴욕한인음악구락부를 조직했고 이곳에서 고문을 맡았다. 1939년에 뉴욕에서 윤성덕, 이병간, 전창수, 조홍식이 참여한 음악구락부의 창립기념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비슷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성덕의 남편 차진주는 임배세와 함께 감사위원을 맡았다. 장정운,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41.

45) “뉴욕한인음악구락부,” 『신한민보』 1941. 12. 4.

수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음악교육자로 인식했던 윤성덕이 자신의 소명을 펼칠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후 활동에 분명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표 4] 뉴욕에서의 윤성덕의 음악 활동

날짜	제목	장소	내용
1939년 4월 20일	기독교 학생회의 만찬회	프린스 조지호텔	이화여전 출신 김상순, 김영의, 임배세와 함께 음악 연주
1940년 5월 12일	뉴욕한인음악구락부	뉴욕한인교회	윤성덕 피아노 연주
1940년 5월 19일	뉴욕한인음악구락부	뉴욕한인예배당	차진주 독창, 윤성덕과 이광준 피아노 병주 윤성덕 광고, 회의 설명 및 신입회원 설명
1940년 12월 15일	국민회 주최 '김호씨 환영'식	뉴욕한인교회	임배세와 함께 합창
1940년 3월 1일	뉴욕한인음악구락부	뉴욕한인교회	뉴욕한인음악구락부 합창
1942년 1월 18일	한인연합회주최환영회	뉴욕한인예배당	윤성덕 피아노 독주
1942년 3월 1일	3.1절 경축전례	뉴욕한인예배당	윤성덕 피아노 독주 <헝가리아 승전곡>, 김경 사회
1942년 4월 부활절주일	부활절 기념	뉴욕한인예배당	윤성덕 연주
1942년 5월 24일	리원순과 조병요씨 환영식	뉴욕한인예배당	윤성덕 피아노 독주회

미국에서의 결혼과 출산이 윤성덕을 한국으로 추방되지 않게 해주었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서신은 그녀가 처한 당시 상황을 말해준다.<sup>46)</sup> 조선의

46) 1942년 12월 26일 윤성덕이 딸을 낳기 약 두 달 전, 이민자들의 허가와 추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르만 R. 랜던(Herman R. Landon)은 미국 이민국에 서신을 보내어 윤성덕이 임신 중이기 때문에 몸이 회복될 때까지 추방하지 말아 달라고 하며 남편도 역시 이를 고려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비자를 연장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국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윤성덕은 결국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결심한다.<sup>47)</sup> 음악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이 강했지만, 조선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윤성덕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의지는 가족에 대한 마음으로 대체되었고 시기상으로도 미국 재방문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화여전에 자신을 대체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48)</sup>

윤성덕의 미국 체류에 증인이 되어주었던 인물은 1947년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교회 목사였던 Key H. Chang(1907~?)과 남감리회 선교사 빅터 웰링턴 피터스(Victor Wellington Peters, 1902~2012)<sup>49)</sup>이었으며, 지인으로는 아이린 린트 여사(Mrs. Irene Lind), 레오노라 로빈슨 여사(Mrs. Leonora Robbins), 랄프 크넵 여사(Mrs. Ralph Knapp), 데이브 코헨(Mr. Dave Kohen), 엠마 맥널티 여사(Mrs. Emma McNulty), 로버트 무어헤드 여사(Mrs. Robert Moorehead), 루이즈 마틴 여사(Mrs. Louise Martin)가 있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윤성덕은 로스앤젤레스 한국음악모임(Korean Music

해달라고 했다. "A letter by Herman R. Landon,"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2. 12. 26.

47)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1945년 5월 29일 윤성덕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는데, 이민국의 지시에 따라 비자 연장을 신청하든지 1946년 2월 2일 전에 출국하라는 내용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국이 요청되면서 윤성덕은 비자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 1947년 2월 영주권을 신청했다. "A letter from Chicag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5. 5. 29.,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48) 당시 이화여전에는 김애식이 있었고, 김메리가 1934년 9월부터 이화여전 음악과에 부임해 있었다.

49) 빅터 웰링턴 피터스는 미국 캔자스 출신으로 1928년 파송된 남감리회 선교사로 한국명은 피도수(皮道秀)이고 1947년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 목사였다. 윤성덕과의 인연은 피터스가 1941년 뉴욕한인교회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38년 결혼한 피터스의 아내인 한흥복(韓興福)은 이화여전 문과 출신으로 윤성덕에게 음악을 배웠다.

Club)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었고<sup>50)</sup> 교회에서 무급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다. 윤성덕은 1953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1968년 6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 3. 나가며: 근대여성음악가 윤성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윤성덕의 삶을 사료를 통해 구체화해보고 세 시기로 나누어 활동을 추적해 보았다. 그녀의 미국 유학에는 선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이화여전의 독립적인 음악학교로의 도약과 발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키워진 그녀의 음악적 소명은 기독교와 여성 교육정책이라는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음악교육자의 모습으로 발현되었다. 조선음악계가 미국 유학을 경험한 윤성덕에게 연주가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던 면도 있었지만 음악가로서 자신의 성공보다 후대의 가르침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녀는 귀국 후 독주회나 독창회 없이 약 8년간 이화여전에서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펼쳤고 외부 음악 활동과 함께 이화여전클리블을 이끌어 나가는 등 음악교육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후 더 큰 배움과 경험을 조선으로 가져오기 위해 1937년 미국으로 갔으나 불안정한 조선의 상황으로 인해 윤성덕은 귀국을 미루게 되고 비자 문제와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며 끝내 미국에 정착한다.

윤성덕에 앞서 이화학당에서 교육받고 미국 음악 유학을 경험한 음악가로는 김애식(金愛湜, 1890~1951)과 임배세(林培世, 1897~1999)가 있다. 임배세는 192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종교교육으로 전공을 바꾸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했으며, 김애식은 1921년부터 약 2년간 미국 유학을 경험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이화여전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식민지와 가부장 사회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여성들로서 유학 이후 조선으로 돌아와 음악교사로서 활동할 목표를 가지고 유학을 떠났다는 것이다,

50)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윤성덕은 1948년 3월 3일 영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접한 음악은 조선에서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서양음악이었고 음악교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받았던 음악교육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여성들을 교육하고 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인력이 요구되던 상황에서 오랜 시간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연주자로서의 모습은 쉽게 기대될 수 없었다. 윤성덕의 유학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당시 여성들의 음악교육에 있어 선두에 있었던 이화여전의 제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조선인 음악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후 김메리(金袂禮, 1906~2005), 김영의(金永義, 1908~1986) 등의 많은 근대 여성 음악가들이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와 지원을 통해 미국 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하여 이화에 교육자로 투입되는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성덕이 유학을 떠났던 1920년대는 3·1운동의 경험과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서구사상의 영향으로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여성의 해방과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당시에도 여성 문제에 관하여 남성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받은 교육 내용과 수준, 교육기관의 기능, 기독교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한계 등 실제 행해지고 있던 여성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sup>51)</sup>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꿈을 키우고 펼쳐나갔던 ‘이화’라는 공간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축소된 윤성덕의 음악 활동은 초기 기독교가 음악가를 키워내는 자양분 역할을 했으나 한편으로 그녀를 기독교 아래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따르는 재능 있는 음악가로 머무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부장적인 사회와 일제 식민지라는 이중적인 억압 상황 속에서 독립된 여성으로서 교육을 통해 권리와 자유를 깨닫고 자아실현을 위해 나아가며 자신의 역량을 여성들의 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윤성덕의 모습은 훗날 더 영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선구자적

51) 이송희, “1920년대 여성해방교육론에 관한 일고찰,”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서울: 국학자료원, 2014), 98-102. 여성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참조.

인 근대 여성 음악가로서 분명 더 큰 의미가 있다. 미국에 정착한 이후 교육 자로의 삶은 아닐지라도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온 음악 활동은 윤성덕에 있어 음악이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윤성덕이 미국을 재방문하지 않았다면 혹은 혼란스러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면, 그녀의 음악 활동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半島 樂壇人 漫評.” 『東光』 22 (1931), 39.
- “내게 感化를 준 사람들.” 『東光』 33 (1932), 36.
- “五大學府 出의 人材 언.파렛트.” 『三千里』 4/2 (1932), 2.
- “서울 獨身女敎員名簿.” 『三千里』 8/6 (1936), 131.
-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wenty-Eigh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Chang Moon Christian Press, 1926.
- Northwestern University, *The School of Music: Annual Announcement, 1928-1929*,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29, 40.
- Northwestern University Gymnasium, *Seventy-First Annual Commencement*,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29, 18.
-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Year Book: Fifty-Seventh Annual Report of the Society*, New York: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6, 151.
- “A letter by Herbert Welch.” *McCormick Library of North western University*. 1926. 9. 22.
- “A letter by J. M. Avann.”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2. 9.
- “A letter by Northwestern Registrar.”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2. 10.
- “A letter by Chairman Committee on Registration, Oliver S. Beltz.” *McCormick Library of Northwestern University*. 1928. 10. 3.
- “Application to extend time of temporary stay.”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8. 7. 8.

-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8. 7. 16.
- “A letter by H. O. Peebles.”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2. 15.
- “A letter by Edith M. Roy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3. 23.
-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3. 27.
- “A letter by Sei Toku In.”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6. 26.
- “A letter by San Francisc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39. 12. 4.
- “Certificate of admission of Alien.”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1. 10. 18.
- “A letter by Herman R. Landon.”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2. 12. 26.
- “A letter from Chicago District.”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5. 5. 29.
- “A file from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0.
- “A letter by District Director, Los Angeles, California.”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47. 2. 13.
- “Petition for Naturalization of Mary Sungduk Charr.”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1953. 6. 12.
- “Alien Student Record.”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날짜미상.

『동아일보』

- “梨花傳道隊.” 1920. 6. 21.
- “꽃갓흔處女の 梨花傳道隊.” 1920. 6. 24.
- “梨花傳道隊傳道.” 1920. 7. 12.
- “故國을 뒤두고 常綠의 나라로.” 1923. 9. 21.
- “中央幼稚園의 音樂演奏會.” 1923. 5. 23.
- “木浦音樂大會開催.” 1923. 8. 23.
- “昔日은 樂壇의 明星 尹心德嬢.” 1925. 8. 1.
- “昔日은 樂壇의 明星 尹心德嬢(四).” 1925. 8. 5.
- “東衝西突 覆面記者.” 1925. 10. 30.
- “音樂講演會 朝鮮學生會主催.” 1925. 12. 10.
- “경성여자음악대회.” 1925. 11. 26.
- “경성여자음악대회의 盛況.” 1925. 11. 30.
- “音樂講演會 朝鮮學生會主催.” 1925. 12. 10.
- “一流를 網羅한 講演과 音樂.” 1925. 12. 11.
- “미국 가는 세 언니.” 1926. 7. 16.
- “金尹兩인이 情死하기까지 (二).” 1926. 8. 7.
- “新春樂界 숨은才媛 (15) 將來洋琴大家 金元福嬢.” 1926. 1. 30.
- “中央엠티青年會 女子常識講座.” 1931. 5. 31.
- “樂星總網羅 音樂協會組織.” 1931. 2. 13.
- “明夜에 開催될 梨專同窓音樂會.” 1931. 1. 23.
- “손끝律動에仙樂이彷彿 滿場이 陶醉한 夢幻境.” 1933. 5. 10.
- “별서 聖誕祝賀氣分 十日저녁 정동예배당에서, 梨專 글리클럽祝賀音樂.” 1933.  
12. 8.
- “梨花專門主催 마스·칸차타.” 1933. 12. 10.
- “梨花女專合唱隊 北朝鮮巡廻音樂.” 1934. 6. 26.

- “梨專巡廻音樂 철원에서공연.” 1934. 6. 22.  
“第一回 全朝鮮女子中等校 懸賞音樂大會.” 1934. 5. 29.  
“音樂界의 權威 自進하야 演奏.” 1934. 9. 21.  
“梨專懸賞音樂 明七日貞洞禮拜堂에서.” 1934. 11. 7.  
“海外에 活躍하는 우리의 音樂家들 (其二).” 1935. 1. 2.  
“音樂教育研究次 尹聖德氏 渡米.” 1937. 8. 24.

### 「매일신보」

- “留學가는 여학생, 그 부친은 나물장사 그 모친은 병원 고용.” 1915. 4. 27.  
“신랑 신부.” 1917. 12. 29.  
“東京音樂校에 입학된 조선 두 부인.” 1920. 5. 4.  
“詩의 記念과 大宣傳, 십일에는 아주 굉장할 것.” 1921. 6. 9.  
“梨花大學 卒業, 고별노래로 폐식.” 1922. 3. 26.  
“日東의 두名花 半島樂壇의 喜消息.” 1926. 6. 22.  
“聲樂家尹心德孃 情夫와 玄海에 投身情死.” 1926. 8. 5.  
“專門學校巡禮 (四).” 1931. 2. 27.  
“梨專巡廻音樂團 鐵原劇場서開催.” 1934. 7. 1.

### 「중의일보」

- “금의환향한 김양, 금추부터 이화여전의 교수로.” 1928. 7. 22.

### 「시대일보」

- “講演, 音樂大會 主催는 朝鮮學生會.” 1925. 12. 10.

### 『신한민보』

- “윤성덕여사는 시애틀로 도미.” 1926. 8. 26.  
“시카고 학생총회.” 1927. 9. 1.  
“시카고 학생대회.” 1928. 6. 14.  
“새해를 임박한 시카고.” 1927. 12. 27.  
“윤기성군의 부친상.” 1929. 7. 18  
“김·윤량 여성 인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1929. 8. 8.  
“윤성덕 양이 상항에 다녀와 귀국.” 1929. 8. 8  
“아펜젤러양과 조선여자대학.” 1931. 1. 8.  
“윤성덕양 도미.” 1937. 10. 7.  
“유학생총회 동부대회.” 1938. 6. 16.  
“음악구락부의 창립기념일.” 1939. 5. 1.  
“뉴욕지방회의 김호씨 환영.” 1940. 12. 26.  
“뉴욕 한국부인 구제회 의연록.” 1940. 12. 26.  
“각지방회 21기념식.” 1941. 2. 13.  
“뉴욕지방회.” 1941. 2. 27.  
“뉴욕한인음악구락부.” 1941. 12. 4.  
“한·송 양씨 환영회 재류동포의 주최로.” 1942. 1. 29.  
“각지방회의 3.1절 경축전례.” 1942. 3. 12.  
“하와이대표 이·조 양씨를 환영.” 1942. 5. 14.  
“차진주씨 동부인 득녀.” 1943. 3. 4.

### 『경성일보』

- “あすの放送(廿日).” 1926. 6. 20.  
“聲樂家尹心德嬢男と抱合心中、 妹の渡米を見送りての歸途聯絡船から投身す.”  
1926. 8. 5.

『조선중앙일보』

“梨專, 延專, 京保 等 學園合唱隊出演.” 1935. 4. 16.

『조선일보』

“大音樂會의 盛況.” 1923. 8. 19.

“樂聖誕生紀念 大演奏會.” 1923. 12. 16.

“布哇學生의 故國辭別.” 1923. 9. 1.

“飢餓에 우는 三百萬同胞! 女流의 손으로 慈善音樂.” 1924. 10. 19

“旋律에 흐르는 哀愁.” 1924. 10. 23.

“同胞愛의 試金石今夜의 慈善音樂.” 1924. 10. 21.

“今夜의 饑饉音樂.” 1924. 11. 14.

“朝鮮日報主催 饑饉救濟女流慈善音樂大會.” 1924. 10. 20.

“경성녀자음악대회.” 1925. 11. 26.

“리화학당창립 사십주년기념.” 1925. 5. 29.

“리화녀전음악회.” 1925. 6. 20.

“삼십년동안녀자교육에증사한 리성희씨의 환갑.” 1925. 12. 16.

“경성녀자음악대회의 盛況.” 1925. 11. 30.

“一流를 網羅한 講演과 音樂.” 1925. 12. 11.

“음악가 될 어린이들을 위하여.” 1926. 1. 1.

“盛況을 預期하는 新春男女音樂.” 1926. 1. 16.

“윤성덕 양의 미국유학 이화학교 교비로.” 1926. 7. 15.

“美聲의 主人尹心嬭嬢 青年文士와 投身情死.” 1926. 8. 25.

“聲音은 歷歷 主人은安在.” 1926. 8. 13.

“新學期를 마지한 市內各女學校의 消息(二).” 1928. 9. 23.

“授賞式舉行과 音樂會를 開催.” 1931. 12. 6.

- “中央禮拜堂增築 落成奉獻式盛大.” 1931. 1. 19.  
“名歌手選拔 審査員四氏決定.” 1934. 2. 14.  
“朝鮮樂壇의 寵兒 梨專巡廻音樂團.” 1934. 6. 15.  
“梨專 秋期大音樂會順序 十一月三日밤·培材大講堂에서.” 1934. 11. 2.  
“盛況을 豫期하는 梨專音樂大會.” 1934. 6. 30.  
“梨花清芳五十年(終) 幼稚園부터專門까지 今日이 隆運의絶頂.” 1936. 5. 23.  
“梨花女專音樂團 地方에 巡廻演奏.” 1936. 11. 3.  
“梨專尹嬢渡米.” 1937. 8. 4.  
“音樂教育研究次 尹聖德氏渡米.” 1937. 8. 25.

## 2차 문헌

- Miessner, William Otto / 윤성덕 편역. 『피아노 旋律法』. 경성: 이화전문학 교음악부, 1930.  
김성은. “김합라.”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이송희.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서울: 국학자료원, 2014.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편).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음·악·학』 35 (2018), 7-67.  
최승현. “1930년 이화 음악과의 『피아노 선율법(旋律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 『이화음악논집』 10/1 (2006), 1-3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이화7인전도대.” <http://ewha.ac.kr/ewha/intro/history02-2.do>, 검색일: 2021. 1. 21.

## Abstract

### Mary Sungduk Youn's Life and Musical Activities based on Primary Sources and Historical Records

Chang, Jeong Youn

This paper is a fundamental study on Mary Sungduk Youn (尹聖德, 1903~1968), a female musician who studied abroad in early modern Korea, and starts to discover her life and her musical activities based on primary sources and historical records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copies of personal documents and the records from the universities and the archives in the U.S.

Based on them, Youn's life can be divided into 3 periods. The first period is the time when she was raised and educated under the Christian family and Ewha Haktang. And the second is the time when she went abroad to study music in the U.S., supported by several missionaries involved in Ewha College and the time she devoted herself as a professor to improve the music educational system of Ewha College after coming back from America. The last is the time after she revisited the U.S. for having experience on the latest music educational system and for introducing it to Ewha College.

The vocation for music that appeared throughout Youn's life and activities was manifest as a music educator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Christianity and women's education policy rather than self-actualization for personal success and fame. And Youn was an important figure after Alice Kim (1890~1951) who was the first music educator going abroad to study in the U.S., and as a pioneer Youn was at the beginning of studying abroad of female musicians such as Mary Chesik Kim (1906~2005) and

Youngyi Kim (1908~1986), supported by missionaries within their strong network.

By discovering Youn's life and musical activities with the people involved, this study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conflicts and desires of female musicians who were active in the early modern Korea.

Key Words: Mary Youn, Mary Sungduk Youn, Mary Sungduk Charr, Ewha College, McDowell Scholarship, Mary Young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4일	2021년 4월 16일~6월 21일	2021년 6월 22일

DOI 10.34303/mscol.2021.29.1.001